



세상의 빛을 모든 이들에게

이 정 은

(성모자애병원 사회사업과)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면서 희귀한 병들로 아파하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 중에서도 안과질환은 그 질환의 경미정도와 관계없이 생활의 불편함으로 직결되어 하루 빨리 치료받기를 원하고 받아야만 하는 질환이다.

본원에서는 총 79명의 환자들이 무료 개안수술 사업의 치료비 지원을 받아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무료개안 수술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집도 없고 돌봐 줄 가족도 없는 독거노인들이었다. 정부보조금으로 어렵게 생활을 하시며 그나마 죽을 때까지 내 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기를 마지막 소원으로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아주 흔하고 치료가 쉬운 질병으로 여기는 백내장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이 치명적인 것이었다. 혼자 간신히 누울 수 있는 몇 평되지 않는 방 안에서조차 잘 보이지 않아 스스로 식사조차 챙겨 드시는 것이 힘들게 된 어르신들에게 밖에 나간다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 된

다. 누군가 일부러 찾아오지 않는 이상 혼자 어두운 방 안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백내장이라는 질병은 사람들의 눈만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어둡게 만들어 남은 생애를 지탱하게 만드는 작은 힘마저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처음 면담시 상담자의 얼굴조차 잘 보이지 않았던 할머니, 수술 후 몇 개 되지 않는 계단을 여러번 쉬어가며 힘들게 본과에 방문하여 이제는 잘 보이니 상담자의 얼굴을 꼭 보고 가시겠다던 일. 내과적인 문제로 결국 수술을 받지는 못 하셨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눈수술을 장기간 방치하셨던 할아버지, 본인의 몸조차 가눌 힘 없는 부인에게 자신의 몸을 지탱하여 현관에서 사회사업과까지 몇 십분에 걸쳐 오셨던 일. 무지와 생활고로 평생 안과에 한번도 와 본적 없이 원래 시력이 나쁘다고 생각했던 환자, 수술 후 이런 색들이 있었는지 몰랐다면 기뻐했던 일... 수십 명의 환자들이 떠오른다.

환자들을 1년여간 상담하며 발견한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눈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퇴원 후 환자들이 돌아가야 하는 상황은 모두 절박하다.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방, 그나마 입원으로 일을 하지 못해 잔고가 0원이 되어버린 은행통장... 입원전보다 더욱더 힘들어졌을 지도 모르는 생활고만이 환자들을 기다리고 있으나 퇴원하는 환자들의 표정은 조금은 밝아지고 힘이 생긴 모습이었다. 어두운 눈 앞처럼 자신의 신세도 더 이상 나아질게 없다고 자포자기 했던 심정에서 조금은 밝아진 세상을

보며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노력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았다.

무료개안 수술은 단지 환자들의 눈 수술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색 빛 어두운 세상에서 밝고 활기찬 장미 빛 세상으로의 전환점이 되어주었다. 끝으로 거동은 물론 대화조차 힘들었던 환자들에게 따뜻하고 진심어린 사랑의 의술을 펼쳐주신 안과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